

T V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미쓰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김도 20 아침 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여성공간 55 비틀미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KBS 특선	00 아름다운 콘서트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10 월화드라마 <스파이 영웅 스페셜>	00 MBC 뉴스 15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00 SBS 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00 KBS 결집전 <성균관 스캔들>(재)		05 통일전망대 45 지구촌 리포트(재)	30 감성여행 간지역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여성아카데미	30 테마여행 길을 걷다(재)	10 시추예이선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55 MBC네트워크 특선	00 SBS 뉴스 10 넷워크 현장 고항이 보인다
10 우리마을을 돌보고 싶을 때	00 KBS 뉴스타임 05 열린마당 헌터(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 여행	50 MBC 뉴스	10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TV(출천)	00 TV 유치원 30 부부와 속속친구들	00 뽀뽀뽀 아이즈아 30 싸이키 히어로	00 안녕 자두야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릴레이	00 수목미니시리즈 <년 내게 반했어>(재)	00 SBS 뉴스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써니포드(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성서	30 6시 뉴스 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행복TV (여기는 전라도)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00 생생정보통	45 일일시트콤 <몽양 내 사랑>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30 300회특집 위기탈출 넘버원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 드라마 <스파이 영웅>	55 MBC 월화특별기획 <계백>	55 월화 드라마 <무사 백동수>
00 가요무대			
00 KBS 뉴스라인 40 과학카페	05 대국민 토크쇼 <인생하세요>	1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15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특집다큐
25 KBS 뉴스 35 KBS 다큐특선	15 미리보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특집 35 TV특강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15 TV 백과사전 25 라이프리인 45 전통문화의 향기

# 국민 예능 '1박2일' 종영기로

## 강호동 하차로 인기 유지 어렵다 판단... 팬들 충격

‘국민 예능’ 프로그램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이 과감하게 명예 퇴진을 선택했다.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린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팬들의 충격은 크다. KBS로서도 효과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끝까지 1등 프로그램의 위상을 지키겠다는 용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핵심 강호동이 하차가 유력한 상황에서 강호동이 빠진 ‘1박2일’이 이전과 같은 인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박2일’에서 강호동은 한마디로 기둥이었다. 팀장 격으로 다른 멤버들을 이끌고 MC로서 프로그램의 균형을 잡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하차는 다른 멤버의 하차가 갖는 의미와 달랐다. 그러나 ‘1박2일’의 종영이 시청자를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제작 논리에 시청자들이

몰랐다는 불만이 애청자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한 주의 즐거움이었는데 계속 하면 안 되나’ ‘강호동이 하차해도 계속 방송해달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이 잇따랐다. ‘1박2일’에 합입어 매주 완관을 기록하는 ‘해피선데이’의 광고수익으로 예능국 전체의 제작비가 충당될 정도다. 재방송까지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면서 작년 한 해 ‘해피선데이’의 광고 수익은 4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KBS 예능국을 이끌어온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이 컸던 프로인 만큼 빈자리도 클 것으로 보인다. KBS가 이미 후속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갔지만 ‘1박2일’이 분께도에 오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점을 감안하면 KBS가 주말 예능계에서 이전의 입지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작진이 시즌2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로 ‘1박2일’이 지난 4년간 쌓아온 성과를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박2일’의 퇴장은 KBS 독주체제로 굳어진 일요일 저녁 예능 시간대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6개월 후 경쟁 프로그램의 진용에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1강2약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커 보인다. ‘나는 가수다’로 부진의 늪에서 탈출한 MBC ‘우리들의 일밤’은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명예졸업생 도입으로 정기적인 출연진 교체에 예고한 ‘나는 가수다’는 새로운 가수들의 활약으로 초반 긴장감을 되찾는다면 ‘1박2일’의 빈자리를 채할 가능성이 크다. MBC와 앞치라뒤치라하는 SBS ‘일요일이 좋다’는 다이어트 코너 ‘빅토리’를 끝내고 새 코너로 ‘1박2일’의 후속 프로그램과 맞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 제20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방 바둑대회

**전국최강의 바둑도시 광주**

1회전 3국 4부(54~69)

白 박정규 5단    黑 강행욱 5단  
(KT광주본부)    (변호사회)

지난 19일 연구생을 포함한 153명의 아마강자들이 참가한 제13회 일반인 입단 대회에서 광주출신인 김성진(22)·박민규(17)가 7승자 동률재국에서 2연승을 거두며 극적으로 입단에 성공했다. 김성진군은 지난 5월에 일본 아함동산 배에서 조지훈 9단 등 일본의 우수한 프로들을 연파하고 16강에 진출하여 일본 바둑계를 놀라게 한 바 있고 박민규군은 동양공고 2년생으로 연구생 서열 2위의 강자로 일찍부터 입단 영송위로 알려져 앞으로의 활약이 크게 기대되는 유망주들이다.

이로써 광주는 필자를 비롯하여 최근 후지쓰배를 제패한 박정환, 양근, 김지서, 백홍석, 손소진, 김수용, 조경호, 윤찬희, 류동완·류민형 형제, 여유기사 강승희, 최정 등을 보유하고 전국최강의 바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백 54로 들어가 본 것이 흑 55를 기다려 56, 58로 중앙을 정비하려는 좋은 수순이다. 그러나 다음 백 62로 계속해서 이단짓 허간 것이 오버페이스다. 물론 기세상 이렇게 둔 것이지만 시종 끌러다니던 흑이 65, 67로 강력하게 역습할 기회를 주고 있다. 갑자기 혼돈상태에 빠진 국면이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2일(음 7월 23일 己酉)

子	48년생 육십 버리는 자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를 보낸다. 60년생 상대의 어려움이 보였을 때 돕는다면 효과 있을 것이다. 72년생 작은 것은 내주고 귀중한 것 취하라. 84년생 좋은 사람과 만남이 있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69, 08
丑	49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면 쌍방이 목적을 성취하라. 61년생 부부간에는 서로 배려하자. 73년생 일반 공중에게는 작은 피해도 주면 안 된다. 85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18, 81
寅	38년생 생각하지도 않은 큰 소비가 생기니 현명하게 판단하라. 50년생 말은 아끼고 무겁게 함이 좋다. 62년생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야. 74년생 새벽부터 서둘러라. 급한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98, 40
卯	39년생 옛일을 잊고 화해하면 망신은 면한다. 51년생 마무리가 안 된 일이 자신을 괴롭힌다. 63년생 경쟁자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다면 길하라. 75년생 오랫동안 생각해 오던 일을 결정해도 좋을 수다. 행운의 숫자: 01, 31
辰	40년생 삼사원하면 실수는 없으리라. 52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마라. 64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길하라. 76년생 속도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행운의 숫자: 54, 25
巳	41년생 어른이 지혜를 보여줘야 애착사람이 따르리라. 53년생 진로를 약간만 수정하면 순풍을 만날 것이다. 65년생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77년생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39, 68
午	42년생 상대의 말을 무시코 제3자에게 물었다가 난처해질 수 있다. 54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듯하다. 66년생 직업과 배우자에 관해서 불평이 나타날 수 있다. 78년생 같은 화려하나 실속은 없으니 자중하라. 행운의 숫자: 90, 19
未	43년생 믿는 도끼가 위험하니 세심하게 살펴라. 55년생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67년생 특 특한 재방도 쥐 구멍으로 풀린다. 79년생 뜻 밖의 술 자리는 피하라. 행운의 숫자: 04, 74
申	44년생 눈을 조금만 낫혀서 현실을 보라. 56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68년생 살기하여 무책임하다는 평을 듣지 않아야겠다. 80년생 자기 계획의 계획을 세우고 조종해 추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80, 55
酉	45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처리해야 한다. 57년생 상대의 것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니 적용하지 마라. 69년생 용기있게 도전해도 무리가 없었다. 81년생 사람은 이제부터다. 행운의 숫자: 32, 27
戌	46년생 남의 눈 속의 티끌 보지 말고 자신의 눈 속의 때를 보라. 58년생 불리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응시하며 살아라. 70년생 옛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82년생 재반사를 새롭게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14, 20
亥	47년생 신중하게 간담으로 보라. 59년생 점차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 징후가 보인다. 71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시기가 나는 경사가 있다. 83년생 남의 마음이 다 자기 마음 같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21, 70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워	오하오우 니혼고
<h3>버리</h3> <p>광석이나 석탄 따위를 켤 때 쓸모없이 버려지는 돌맹이.</p> <p>광석이나 석탄을 켤 때 광물이 섞여 있지 않은 돌은 버리게 마련인데 이것이 바로 '버리'이다.</p> <p>또한 저수지를 파거나 바다에 방파제를 만들 때, 바다에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물속 바다에 넣은 잡다한 돌맹이 또한 버리이다.</p> <p>별로 중요하지 않은 허접스러운 물건을 빚대기도 한다. 한편 만들어 사용하던 물건이나 도구가 못 쓰게 되어 버려지는 경우에는 이를 '버림치'라고 한다.</p>	<h3>Those glasses really look like you</h3> <p>그 안경은 정말 너한테 딱 맞다</p> <p>A: What do you think about these glasses on me? B: They are okay, but you can do better. A: What about these? B: Definitely. Those glasses really look like you.</p> <p>A: 누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은 어때니? B: 괜찮아. 하지만 좀 더 멋진 안경을 고를 수 있을 텐데. A: 이건 어때니? B: 바로 그거야. 그 안경은 정말 너한테 딱 맞다.</p> <p>* 어떤 안경이 나한테 더 멋있게 보일까? = Which glasses look better on me? * 이 금속테 안경은 맘에 드니? = Do you like these wire-rimmed glasses?</p>	<h3>麻雀虽小, 五臟俱全</h3> <p>참새에게도 오장은 모두 갖춰져 있다</p> <p>"참새(麻雀)는 조그맣더라도(虽小) 오장(五臟)은 모두(全) 갖춰져 있다(俱)." 라는 말로 사물이나 조직의 규모는 작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춰져 있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원형을 얻어 살다보면 살림살이가 하나둘 늘게 됩니다. 가정 살림이나 원룸살이나 생활가전에서부터 주방용품 등 거의 모든 것은 다 갖춰져야 생활이 이뤄지죠. 조직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돌아가겠지요.</p> <p>오장은 간(肝)·심(心)·비(脾)·폐(肺)·신(腎)을 말하는 것으로, 각기 '~장' 붙여서 말합니다. 잘 아는 대장·소장은 어디 갔나구요? 군대 갔습니다. 말해 놓고 나니 좀 춥다. 그죠.</p>	<h3>來年日本へ行くつもりです。</h3> <p>내년에 일본에 갈 작정입니다</p> <p>A: もうすぐ卒業ですね。荷をする予定ですか。 B: 日本へ行って勉強するつもりです。金さんは。 A: 私は大企業に就職するつもりです。 B: そうですか。ぼくはどうも語学力が足りなくて。 A: 이제 곧 졸업이군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B: 일본에 가서 공부할 작정입니다. 김씨는? A: 나는 대기업에 취직할 작정입니다. B: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어학력이 부족해서.</p> <p>[문법정리]</p> <p>◎ 사견형 + つもりです (주관적 작정)</p> <p>▶ 来年 日本へ行く つもりです. (내년에 일본에 갈 작정입니다)</p> <p>▶ 5年後に 結婚する つもりです. (5년 후에 결혼할 작정입니다)</p>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